

STEPI 연구보고

우리나라 제조업의 기술혁신기업분포 및 특성

요문섭¹⁾

1. 기술혁신 실적기업의 비율

조사대상 모집단인 31,771개의 제조업체 중 49.2%인 15,630개 기업이 1993년부터 1995년의 3년동안 한 건 이상의 기술혁신 실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술혁신기업이 총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매출액 기준으로는 총매출액 약 436조원 중 69.3%를 차지하였으며, 종업원기준으로는 총 종업원수 약 260만명의 67.6%를 차지하였다(<그림 1> 참조). 기업수를 기준보다 매출액과 종업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기술혁신기업의 규모가 비 기술혁신기업보다 크기 때문이다. 기술혁신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약 193.4억원. 평균 종업원수는 112.6명인데 비해 비기술혁신기업은 각각 82.7억원과 52.3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기술혁신 실적이라는 뜻은 신제품 혁신, 기존제품혁신, 공정혁신을 모두 포함하여 지난 3년동안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혁신을 수행하여 해당제품을 시장에 판매할 실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비율은 전체기업 중 기술혁신기업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제조업체 전반에서 기술혁신활동이 어느정도 범위로 수행되고 있는가

<그림 1>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기술혁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기술혁신기업			비기술혁신기업
	신제품 (37.4%)	기존제품 (37.5%)	공정혁신 (32.6%)	
기업세수기준	49.2%			50.8%
매출액기준	69.3%			30.7%
종업원수기준	67.6%			32.4%

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표가 기술혁신성과의 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외국의 조사결과인 독일('94)이 53%, 프랑스('93-'95) 49.1%, 이탈리아('81-'85) 47.7%, 캐나다('92-'93) 35.8%, 노르웨이('90-'92) 40%, 호주('91-'94) 33.7%, 아일랜드('90-'92) 33%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제조업체 중 기술혁신실적을 달성한 기업의 비율인 49.2%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표 1>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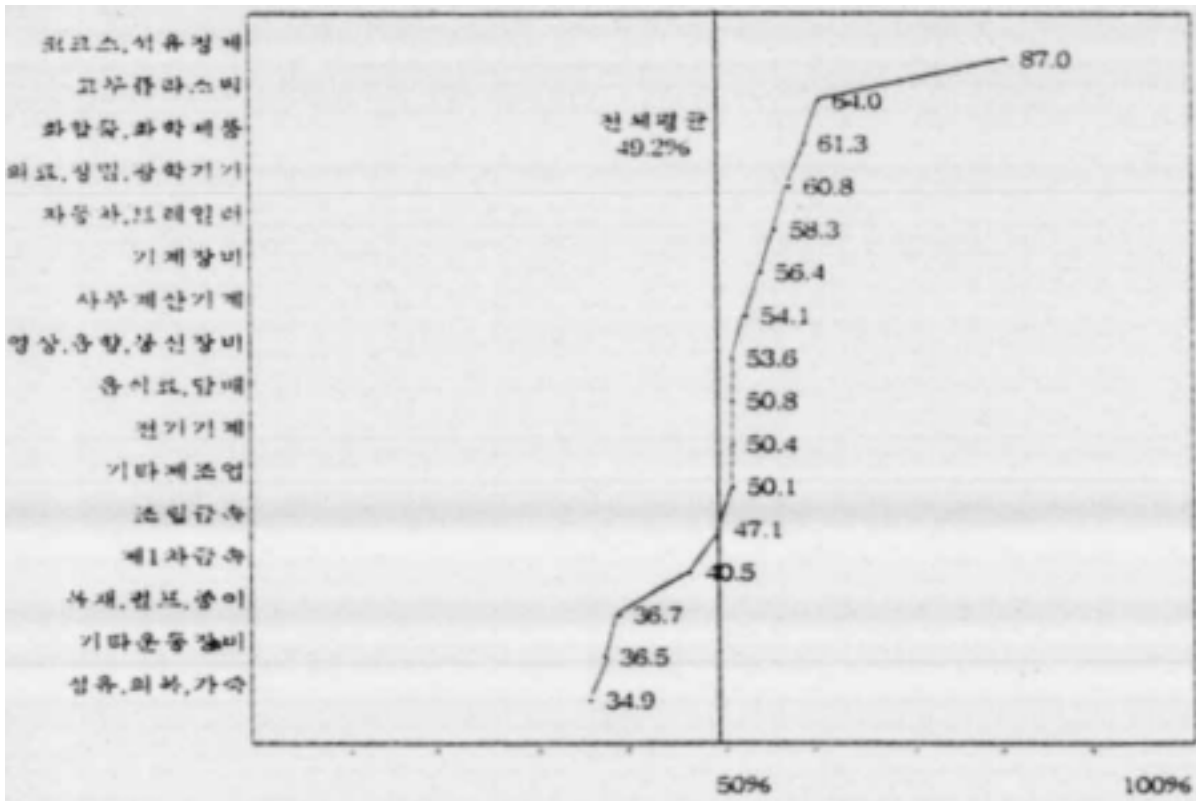
1) 업종별 차이

기술혁신기업이 비율이 60%를 넘는 업종은 코크스 석유정제(87.0%), 고무플라스틱(64.0%), 화합물 및 화학제품(61.3%), 의료정밀광학기기(60.8%)로 나타났고 자동차, 기계

<표 1> 제조업에 기술혁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기준	우리나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아일랜드
기업체수	49.2%	53%	49.1%	47.7%	35.8%	40%	33.7%	33%
매출액	69.3%	81.8%	-	-	-	-	80.5%	-
종업원수	67.6%	79.8%	-	-	42.0%	-	-	-

<그림 2> 업종별 기술혁신기업의 비율(기업수 기준)



장비, 전기 전자 등은 40~60%의 중간 수준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 이외의 기타 운송장비(22.9%), 섬유 및 의복(34.9%), 목재, 펄프, 종이 및 출판(35.9%)업종에서는 기술혁신실적 기업의 비율이 매우 낮아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2>참조).

이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는 외국의 기술혁신 조사보고서에 대부분 누락되어 있어 국제비교가 가능한 호주, 노르웨이, 아일랜드의 결과만을 제한하여 <표 2>에 비교하였다. 제한된 국가간의 비교이지만 업종간 차이의 패턴이 각국의 특성에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업종과 낮은 업종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업종은 각국에 공통적으로 화합물 및 화학제품, 기계장비,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관련업종이고 섬유 의복, 종이 펄프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기타업종은 국가에 따라 상이하였다. 예로서 호주의 비금속 광물, 노르웨이의

차 금속. 아일랜드의 전기기계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은 해당 국가에서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업종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술혁신기업의 비율을 위해서 상기한 3가지 기술혁신형태인 신제품혁신, 기존제품혁신, 공정혁신으로 나누어 업종별 특징을 살펴보면 석유정제, 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 자동차업은 세가지 혁신에서 모두 높은 비율을 보였고 사무계산기계, 영상음향통신장비, 기계장비, 의료정밀기기업은 제품혁신기업의 비율은 높으나 공정혁신이 낮았으며 1차금속업은 제품혁신은 낮고 공정혁신은 높게 나타났다.

<표 2> 업종별 기술혁신기업 비율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기술혁신형태별			호 주	노르웨이	아일랜드
		신제품	기존제품	공정			
음식료, 담배	50.4	37.7	34.7	33.3	35.6	36.8	28
섬유, 의복 및 가죽	34.9	25.1	24.1	20.8	29.9	30.6	34
목재, 펄프, 종이 및 출판	36.7	14.0	19.2	32.3	24.3	33.7	40
코르크, 석유정제 및 석연료	87.0	50.0	78.3	45.7	46.4		
화합물 및 화학제품	61.3	55.0	50.1	43.8		65.9	
고무 및 플라스틱	64.0	57.1	48.5	49.5			45
비금속 광물	39.4	26.1	28.8	20.5	36.7	38.1	42
제1차 금속	54.1	28.4	38.9	39.9	32.0	62.9	26
조립 금속제품	40.5	30.4	31.3	29.7		35.5	
기계 및 장비	56.4	45.4	48.6	35.1	41.9	51.8	38
사무계산 기계	53.6	48.9	40.6	23.2			
전기기계, 전기변환장치	50.1	33.5	37.4	30.2		56.3	61
영상, 음향, 통신장비	50.8	41.5	42.6	27.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60.8	54.2	52.6	28.7		55.5	40
자동차 및 트레일러	58.3	48.3	50.9	51.4		36.8	41
기타 운송장비	36.5	14.8	18.1	26.6			
기타 제조업	47.1	39.8	31.5	33.3			
전 체 기 업	49.2	37.4	37.5	32.6	33.7	40.0	35

주1) 신제품 기술혁신을 포함한 기술혁신기업비율
 주2) 밑줄_은 전체기업평균보다 10%이상 높은 업종임.

주1) 신제품 기술혁신을 포함한 기술혁신기업비율

주2) 밑줄_은 전체기업평균보다 10%이상 높은 업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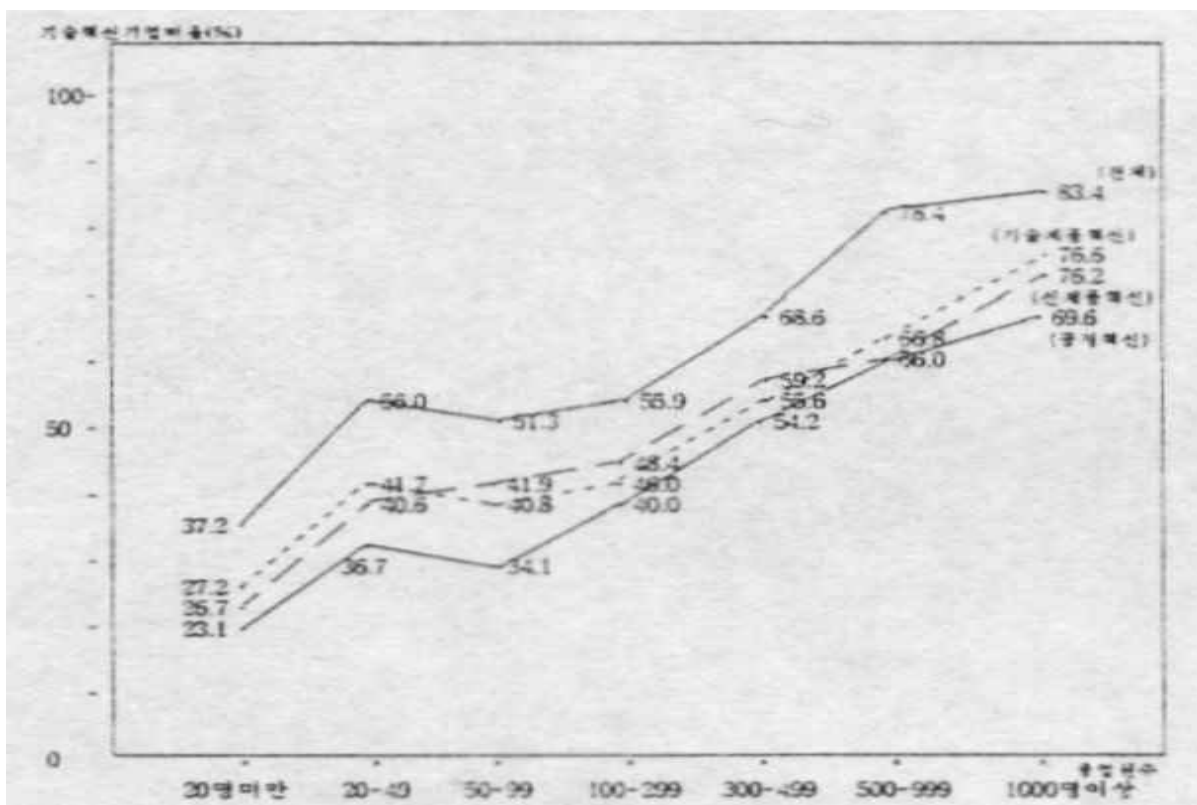
2) 기업규모별 차이

전체기업 중 기업혁신 실적기업의 비율은 기업규모의 크기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 실적이 있는 기업의 평균 종업원수는 112.6명, 년평균 매출액은 19,344백만원, 평균 자본금은 3,504백만원이었으나 반면 지난 3년간 기술혁신 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은 각각 52.3명, 8,273만원, 941백만원으로 비기술혁신기업에 비해 기술혁신기업의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

<표 3> 종업원 규모별 기술혁신기업의 비율(기업수 기준)

종업원수	기술혁신기업	기술혁신 형태별 기술혁신기업 비율		
	비율(%)	신제품혁신(%)	기존제품혁신(%)	공정혁신(%)
20명미만	37.2	26.7	27.2	23.1
20명~49명	56.0	40.6	41.7	36.7
50명~99명	51.3	41.9	40.8	34.1
100명~299명	55.9	48.4	46.0	40.0
300명~499명	68.6	59.2	55.6	54.2
500명~999명	78.4	66.0	66.8	66.0
1000명이상	83.4	76.2	76.6	69.6
전체	49.2	37.4	37.5	32.6
대기업평균	76.5	66.6	67.5	63.2
중소기업평균	48.7	36.8	36.9	32.0

<그림 3> 업종별 기술혁신기업의 비율(기업수 기준)



소기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기업은 76.5%가 기술혁신을 수행한 반면 중소기업은 48.7%에 불과 하였다.

종업원수를 보다 세분하여 보면 종업원 규모가 커짐에 따라 비례하여 높아져 대기업일수록 기술혁신기업의 비율이 높아졌다(<표 3>, <그림 3> 참조). 종업원수가 20명미만 기업의 기술혁신기업이 37.2%로 가장 낮았고 20~299명의 중규모기업은 50%대를 보였고 300명 이상의 기업부터 급속하게 높아져 1000명 이상의 기업은 83.4%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 보아도 전반적으로 종업원수가 커짐에 따라 기술혁신실적기업의 비율이 증가하는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6> 참조). 외국의 조사결과에서도 이러한 조사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4> 참조). 그러나 일부업종의 경우 종업원수가 기술혁신실적기업의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상이한 패턴을 보여 섬유·의복·가죽, 목재·펄·프종이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 등은 소기업보다 중기업의 기술혁신기업비율이 감소하다가 대기업에서 다시 높아지는 U자형 분포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사무계산기계에 있어서는 대기업보다 중기업의 비율이 높은 N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다른 변수인 매출액 규모에 따른 기술혁신 기업의 비율도 매출액 규모가 커짐에 따라 높아

<표 4> 외국의 종업원 규모별 기술혁신기업의 비율(기업수 수준)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아일랜드	
종업원수	기술혁신 기업비율(%)	종업원수	기술혁신 기업비율(%)	종업원수	기술혁신 기업비율(%)	종업원수	기술혁신 기업비율(%)
5명이하	30.3						
5-9	39.5						
10-19	53.8			20명이하	20.9		
20-49	67.7			20-49	36.1	10-49	26
50-99	77.5	100명이하	35	50-99	50.4	50-99	32
100-199	87.1	100-500	43	100-199	60.8	100명이상	60
200-499	92.5			200이상	82.4		
500-989	93.5	500이상	43				
1000명이상	96.0						
전체	33.7		35.8		40		33

<표 5> 매출액 규모별 기술혁신기업의 비율(기업수 수준)

매출액 규모	기술혁신 기업비율 (%)	기술혁신 형태별 기술혁신기업 비율		
		신제품혁신(%)	기존제품혁신(%)	공정혁신(%)
5억원미만	27.1	20.1	16.0	14.6
5-10억원	48.7	30.2	35.0	33.9
10-100억원	50.9	39.0	39.2	32.8
100-1000억원	61.5	53.0	51.3	45.0
1000억원이상	81.4	69.4	72.9	66.7

<표 6> 업종별 종업원수 규모별 기술혁신기업의 비율(기업수 기준)

업종	20명 미만	20-49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명 이상	업종 평균
음식료, 담배	35.1	57.5	51.5	51.7	70	92.9	82.6	50.4
섬유, 의복 및 가죽	25.1	38.2	43.9	29.9	27.0	48.1	72.4	34.9
목재, 펄프, 종이 및 출판	24.0	53.0	34.7	19.5	50	69.2	90	36.7
코스믹스 석유정제 및 핵연료	100.0	100.0	85.7	62.5	0	100	80	87.0
화학물 및 화학제품	33.3	70.9	60.7	71.0	83.3	86.7	97.1	61.3
고무 및 플라스틱	60.1	73.7	51.8	57.7	71.4	83.3	77.8	64.0
비금속 광물	36.1	48.8	15.2	43.4	66.7	87.5	82.4	39.4
제1차 금속	49.7	57.6	41.1	64.1	57.1	66.7	94.1	54.1
조립 금속제품	33.5	41.1	44.1	59.4	80	66.7	83.3	40.5
기계 및 장비	31.7	72.8	70.7	74.1	86.3	91.9	87.0	56.4
사무계산 기계	37.3	41.8	38.9	92.9	50	100	75	53.6
전기기계, 전기변환장치	39.8	54.1	58.2	63.5	69.6	92.3	88.9	50.1
영상, 음향, 통신장비	27.0	57.1	43.1	75.5	83.8	75.9	89.7	50.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62.3	57.6	57.4	66.2	75	83.3	100	60.8
자동차 및 트레일러	28.9	54.5	83.3	79.6	73.0	88.6	77.8	58.3
기타 운송장비	100.0	30	51.5	55.6	66.7	50	60	36.5
기타 제조업	44.7	44.4	60.6	48.8	80	60	90	47.1
전체기업	37.2	56.0	51.3	55.9	68.6	78.4	83.9	49.2

지는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억원 미만의 기업은 37.4%, 5~10억원의 기업은 51.1%, 10~100억원의 기업은 62.9%, 100~1000억원의 기업은 73.3%, 1000억원이상의 기업은 82.9%이다(<표 5> 참조).

이러한 결과는 조사방법상 기술혁신 실적기업이란 혁신의 질적수준 및 혁신건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과거 3년간 어떤 형태의 기술혁신이라도 1건 이상 수행한 기업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이다. 즉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생산품목도 다양할수록 기술혁신 실적기업에 속할 확률이 높아 지는 현상이 전체기업 차원의 통계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3) 수출비율, 해외자본지비율에 따른 차이

기업규모와 업종이외에도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율, 총자본 중 해외지분이 차지하는 비율 및 기업의 설립년도 등도 기술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서 나타났다.

매출대비 수출비율의 크기를 20%씩 나누어

<표 7> 수출비율에 따른 기술혁신기업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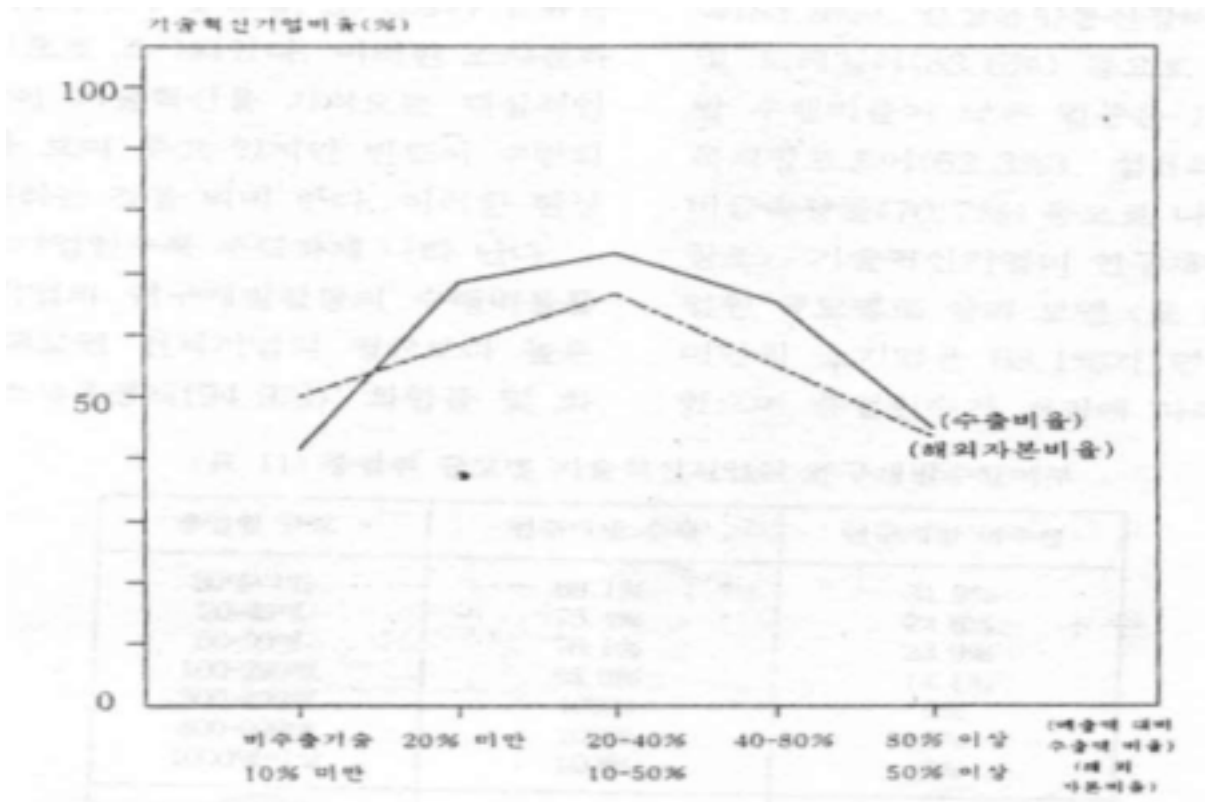
	기술혁신전체	기술혁신 형태별		
		신제품혁신	기존제품혁신	공정혁신
0%	42.8	30.6	31.9	29.3
20%미만	71.5	59.8	54.2	44.2
20-40%	77.8	68.3	68.1	51.1
40-80%	87.7	50.8	56.2	49.2
80%이상	47.6	40.9	34.2	26.8

각 구간별로 기술혁신기업의 비율을 비교해 본 결과는 <표 7>과 <그림 4>와 같다. 수출을 전혀 하지 않고 국내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42.8%가 기술혁신기업으로 가장 낮았고 매출의 80%이상을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기업이 47.6%로 그 다음으로 낮았으나 20~80%의 중간 정도의 수출비율을 갖는 기업들은 70%이상으로 기술혁신기업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출비율이 높은 기업은 OEM 및 해외의 주문사양에 그대로 맞추어 생산하는 제품이 주종이므로 생산중인 제품에 대한 현저한 변화의 요구가 많지 않기 때문이며, 반면 대부분을 국내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은 국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에 비해 새로운 성능 및 품질에 대한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접할 기회가 그만큼 적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 한편 국내외 시장을 균형있게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기술혁신 활동이 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기업에 있어서 기술혁신활동은 수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자본 중 해외자본 비율도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외자기업으로 간주되는 해외자본비율이 50%이상인 기업이 47.4%로 가장 낮았고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인 해외자본비율이 10%미만인 기업도 48.8%로 유사한 정도였다. 그러나 해외자본비율이 10~49%정도로 적극적인

<그림 4> 매출대비 수출비율에 따른 기술혁신기업 비율(기업수 기준)



<표 8> 해외자본비율에 따른 기술혁신기업의 비율

해외자본비율	기술혁신전체	기술혁신형태별		
		신제품혁신	기존제품혁신	공정혁신
10%미만	48.8	36.7	37.0	32.1
10-50%	67.9	59.2	57.5	51.7
50%이상	47.4	44.8	38.2	28.7

로 해외자본을 받아 들이되 경영권은 국내지분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은 기술혁신기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거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로 진출한 해외자본의 주체가 미국, 일본 등 선진기업들임을 감안하면 자본 진출과 함께 선진기술이 도입됨으로써 기술혁신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해외 자본비율이 50% 이상인 외자계 기업에 있어서는 국내자본기업보다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호주의 조사결과는 외자계기업이 오히려 호주계 기업보다 높은 기술혁신기업의 비율이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자계 기업은 진출목적이 새로운 기술혁신제품의 생산보다는 이미 본사에서 생산중인 제품을 국내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수단이나 단순한 조립공정 위주이며 기술개발 활동의 대부분이 해외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기업연령과 기술혁신기업비율과 관계에서는 '90년 이후에 설립된 신생기업에 비해 '89년도 이전에 설립된 기존기업에 있어서 기술혁신기업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뚜렷한 차이를 보여 주지는 않았다.

2. 기술혁신기업과 비기술혁신기업의 연구 개발특성

기업의 기술혁신실적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은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 다양한 활동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 중 연구개발활동은 기술혁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혁신유무와 연구개발활동여부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면 기술혁신 실적에 있는 기업의 75.8%가 연구개발을 수행하였고 24.2%는 연구개발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술혁신기업의 24.2%는 공식적인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지 않고도 기술혁신을 기록하였다. 한편 비기술혁신기업에 있어서는 77.7%가 연구개발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22.3%는 연구개발을 수행하였지만 이러한 노력이 시장과 성공적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의 관계를 연관시켜 기업의 유형을 구분하면 <그림 5>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 모든 기업은 네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된다.

<그림 5>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의 관계에 의한 기업유형

I. 기술혁신실적이 있음 연구개발활동 수행 37.3%	II. 기술혁신실적이 있음 연구개발활동 미수행 11.9%
III. 기술혁신실적이 없음 연구개발활동 수행 11.3%	IV. 기술혁신실적이 없음 연구개발활동 미수행 39.5%

<표 10> 업종별 기술혁신기업의 연구개발 수행여부

업종	연구개발수행	연구개발미수행
음식료, 담배	70.4%	29.6%
섬유, 의복 및 가죽	65.5%	34.5%
목재, 펄프, 종이 및 출판	62.3%	37.7%
코크스, 석유정제 및 핵연료	94.9%	5.1%
화합물 및 화학제품	86.0%	14.0%
고무 및 플라스틱	75.7%	24.3%
비금속 광물	70.7%	29.3%
제1차 금속	64.2%	35.8%
조립 금속제품	85.9%	14.1%
기계 및 장비	83.2%	16.8%
사무계산 기계	83.0%	17.0%
전기기계, 전기변환장치	71.2%	28.8%
영상, 음향, 통신장비	82.4%	17.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75.9%	24.1%
자동차 및 트레일러	83.6%	26.4%
기타 운송장비	76.4%	23.6%
기타 제조업	73.6%	26.4%
전체기업	75.8%	24.2%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37.3%가 I 유형, 11.9%가 II 유형, 11.3%가 III 유형, 39.5%가 IV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연구개발이 기술혁신을 가져오는 핵심적인 투입요소임을 보여 주고 있지만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술혁신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의 수행비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체기업의 평균보다 높은 업종은 코크스석유정제(94.9%), 화합물 및 화학제품(86.0%), 사무계산기계(83.0%), 조립금속(85.9%), 영상음향통신장비(82.4%), 자동차 및 트레일러(83.6%) 등으로 나타났고 연구개발 수행비율이 낮은 업종은 1차 금속(64.2%), 목재펄프종이(62.3%), 섬유의복가죽(65.5%), 비금속광물(70.7%) 등으로 나타났다 (<표 10>참조). 기술혁신기업의 연구개발수행 여부를 종업원 규모별로 살펴 보면 <표 11>과 같다. 20명 미만의 소기업은 68.1%가 연구개발을 수행하였으며 종업원수가 커짐에 따라 비례하여 높아

<표 11> 종업원 규모별 기술혁신기업의 연구개발수행여부

종업원 규모	연구개발 수행	연구개발 미수행
20명미만	68.1%	31.9%
20-49명	75.4%	24.6%
50-99명	76.1%	23.9%
100-299명	85.9%	14.1%
300-499명	100%	0%
500-999명	100%	0%
1000명이상	100%	0%
전 세	75.8%	24.2%

저 300명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기술혁신기업의 100%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업종별 기술혁신형태

기술혁신실적을 신제품혁신, 기존제품혁신, 공정혁신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5,630개의 기술혁신기업 중 신제품혁신을 포함한 기업이 37.4%, 기존제품혁신 기업은 37.5%였으며 공정혁신 기업은 32.6%로 나타났다.

기술혁신형태를 업종별로 보면 <표 12>와 같다. 세가지 기술혁신형태에서 모두 평균이상을 타나낸 업종은 화학물 및 화학제품, 코크스 석유정제, 고무플라스틱, 자동차업이었으며 모두 평균 이하인 업종은 섬유·의복·가죽, 목재·펄·프종이. 전기기계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품혁신위주의 업종은 기계장비, 사무계산기계, 영상음향통신장비업이었고 공정혁신위주의 업종은 목재·펄·프종이. 1차 금속업으로 조사되었다.

<표 12> 업종별 기술혁신 형태별 기술혁신기업비율

(단위: %)

	신제품혁신	기존제품혁신	공정혁신
음식료, 담배	37.7	34.7	33.3
섬유, 의복 및 가죽	26.1	24.1	20.8
목재, 펄프, 종이 및 출판	14.0	19.2	32.3
코르크, 식유정제 및 핵연료	50.0	78.3	45.7
화합물 및 화학제품	55.0	50.2	43.8
고무 및 플라스틱	57.1	48.5	49.5
비금속 광물	26.1	28.8	20.5
자동차 금속	28.4	38.9	39.9
조립 금속제품	30.4	31.3	29.7
기계 및 장비	45.4	48.6	35.1
사무계산 기계	48.9	40.6	23.2
전기기계, 전기변환장치	33.5	37.3	30.2
영상, 음향, 통신장비	41.5	42.6	27.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54.2	52.6	28.7
자동차 및 트레일러	48.3	50.9	51.4
기타 운송장비	14.8	18.0	26.6
기타 제조업	39.8	31.5	33.3
전 체	37.4	37.5	32.6

주석 1) 지표통계분석팀 책임연구원(Tel: 02-250-3031)